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호랑이와 꽃감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꽃감을 무서워한 어리석은 호랑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다.
• **주제** : 재미

핵심어 호랑이, 꽃감, 도둑, 도깨비

한국문화 • **목표** :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즐겨 먹는 음식인 꽃감에 대해 안다.
• **요소** : 꽃감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등장인물의 특징을 말한다.
• **단어** : 호랑이, 꽃감, 도깨비, 도둑
• **표현** : 무서운 호랑이, 무시무시한 도깨비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호랑이를 본 적이 있나요? 덩치는 아주 크고, 울음소리는 산을 울릴 정도로 우렁차고 강력해요. 발톱은 뾰족하고, 이빨은 날카로워서 산 속의 모든 동물들을 잡아 먹을 수 있는 무서운 동물이지요.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마을로 내려왔다가 더 무서운 친구를 만났대요. 이야기 한번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깊고 깊은 산속에 몸집이 크고 힘센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토끼들은 깡충깡충 뛰고, 새들은 푸드덕 날갯짓을 하며 도망가기 바빴지요.

“어흥!”

“으악! 세상에서 제일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다! 어서 도망치자!”

호랑이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다른 동물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벌벌 떠는 모습에 우쭐했어요.

흰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어흥! 배고파.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는걸.”

배고픔을 참지 못한 호랑이는 한밤중에 산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외양간에 있는 황소라도 잡아먹을 생각이었어요.

“으앙, 으아앙.”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집 앞으로 갔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뚝, 그처럼! 계속 울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잡아간다!”

엄마가 우는 아이를 토닥토닥 달래며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흥, 도깨비가 뭐가 무섭다고.”



이야기 들려주기

방문 앞에서 아이 엄마의 말을 들은 호랑이가 생각했어요.

“그만 뚝! 자꾸 울면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간다! 지금 호랑이가 밖에서 입을 짹 벌리고 있잖아!”

엄마가 또 말했어요.

“이런!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지?”

엄마의 말에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으앙, 으아앙!”

아이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내가 잡아간다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네. 좋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겠어!”

호랑이는 곧장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오! 여기 콧감 있네! 콧감!”

엄마의 말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어요.

“아이코! 콧감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겁이 난 호랑이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무서운 콧감에게 들키기 전에 도망치려고 뒷걸음을 쳤지요.

그런데 그때, 황소를 흠치러 온 도둑이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만져보며 외양간을 찾다가 호랑이를 덩석 잡았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황소가 왜 밖에 나와 있지? 흐흐흐, 집주인에게 들키기 전에 빨리 가져가야지.”

소도둑은 호랑이가 황소인 줄 알고 호랑이 등에 재빨리 올라탔어요.

“으악, 꽃감이 벌써 나를 잡은 거야?”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소도둑이 무서운 꽃감인 줄 알고 깜깜한 밤길을 달렸어요.

“으악, 호랑이 살려! 꽃감이 호랑이 잡네!”

호랑이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꽃감을 등에서 떼어 내려고 밤새 이 산 저 산을 계속 펄쩍펄쩍 뛰었어요. 소도둑은 떨어질까 봐 호랑이 등을 꼭 움켜잡았어요.

“아이고, 내 등가족이야! 꽃감이 나를 먹으려고 꼭 깨물었나 봐!”

호랑이는 꽃감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 더 빨리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어요.

소도둑은 이제야 자신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을 알았어요.

“이크, 큰일이다. 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니!”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침, 커다란 나무 밑으로 호랑이가 지나갔어요. 소도둑은 그 나뭇가지를 힘껏 붙잡고 호랑이 등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소도둑이 등에서 내린 줄도 모르고 호랑이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곰이 큰 소리로 호랑이를 불렀어요.

“호랑이님, 어디를 그리 급히 달려가나요?”

“꽃감이 내 등에 탔어! 날 좀 살려 줘!”

“등에 누가 탔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곰이 말하자 그제야 호랑이는 등이 가벼워진 걸 깨달았어요.

“휴, 꽃감이 겨우 떨어졌네.”

밤새 달렸던 호랑이는 힘이 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이후로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는 절대로 가지 않았대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이가 울자 엄마는 무시무시한 게 잡아간다고 했어요. 무엇인지 말해 볼까요? 맞아요. 도깨비예요. 도깨비는 상상 속의 존재인데,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물건으로 변하기도 해요. 도깨비는 장난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내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 엄마는 무서운 호랑이가 왔다고 했어요. 호랑이가 무서워한 게 뭐였지요?

맞아요. 꽃감이에요. 꽃감은 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서 만들어요. 꽃감은 쫄깃하고 달달한 맛이 난답니다. 말린 것을 그대로 먹기도 하고 수정과라는 음료에 띄워서 먹기도 해요. 딱딱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의 간식으로 최고였어요. 여러분도 꽃감을 먹어볼 일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한국의 전통간식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호랑이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여기 꽃감 있네! 꽃감!” 소리에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을 보고 꽃감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필 소도둑이 나타나서 호랑이를 황소라고 생각하고 등에 올라 탔지요. 호랑이는 꽃감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가 맛있는 꽃감을 무서워 하다니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